

스마트농업 중심도시 도약 탄력

남원시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고시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남원시 대산면 일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를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는 총 60.4ha 부지에 5년간(2025~2029년) 988억 원을 투입하여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스마트 원예단지, 스마트 교육·실증단지 등 6대 핵심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본 지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원예산업 기반과 전국 최대 통합마케팅 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 협력하여 생산·유통·가공·교육의 전주기 스마트농업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청년 창업농 50농가 유치, 관련 기업 15개사 유치를 목표로 스마트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며, 스마트농업 농가의 소득 30%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퍼시픽투자증권 등 민간 파트너와 협력하



남원시 대산면 일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가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여 대규모 창업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APC 및 실증단지 등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주민 소득 증대 기반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남원시를 포함한 이번 3개 지구(남원, 진안, 고창)는 총 2,155억 원이 투입되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의

첫 사례로, 향후 농업의 첨단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지구 지정은 남원이 농생명산업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청년과 기업이 모여드는 지역 맞춤형 스마트농업 중심도시로 육성해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왕중 임실군의원, 5분 자유발언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군인가족지원센터 설립 등 촉구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이 지난 10일 제34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군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김왕중 의원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지난 1월부터 우리 의회는 소상공인 및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계속해서 요청해 왔고 지난 2월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왕중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관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 요양보호사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월 3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군인가족지원센터 설립에 관하여 "군인 가족은 직업 특성상 이주가 잦아 낯선 지역에서의 생활, 자녀 교육, 배우자 취업 문제 등 일반 가정과 달리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



가 많다"며 "우리 군이 군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늘 요청드린 내

용은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인데 집행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현재의 예산으로도 요청한 사업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김정현 남원시의원, 5분 자유발언

곤충산업 위한 5대 민관협력 기반 실현 전략 제언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10일 제 273회 정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소멸 대응과 농업전환의 해법-민관이 함께 만드는 그린바이오 곤충산업 생태계 추진으로 남원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해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 기후·식량위기,

농업 기반의 붕괴, 청년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여 농업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남원이 미래 식량자원이자 바이오산업의 핵심 소재인 곤충산업을 통해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곤충산업을 위한 5대 민



관협력 기반 실현 전략으로 △남원형 곤충산업 민관협의체 상설화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플랫폼 구축 △스마트 사육 및 자동화 기술 도입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이 SNS를 통해 선보인 봄꽃 콘텐츠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실제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임실군 봄꽃 SNS 콘텐츠 인기

누적 조회수 30만 뷰 돌파

임실군이 SNS를 통해 선보인 봄꽃 콘텐츠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실제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한 달간 옥정호 작약꽃과 꽃양귀비, 임실치즈 테마파크 장미원을 중심으로 사진 게시물 6건과 숲속 영상 4건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등 공식 SNS 채널에 게시하여 누적 조회수 31만 6천 회를 기록했다.

특히, 옥정호 봄여름 생태공원의 작약꽃밭과 꽃양귀비를 배경으로 제작된 숲속 영상은 약 30~45초 분량의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 11만 6천 회, 좋아요 855개를 기록하며 강한 파급력을 입증했다.

군은 작약 콘텐츠에 이어 임실치즈 테마파크 장미원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도 연이어 게시했다.

사계절 장미원과 유럽풍 건축물이

어우러진 공간은 영상과 사진을 통해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주목을 받았고, SNS를 통한 자발적인 공유와 후기 리그램이 이어지며 또 하나의 인기 봄꽃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SNS 홍보 효과는 실제 관광객 증가로 이어졌다. 홍보가 집중된 5월 한 달간 옥정호 봄여름 방문객은 11만 55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7만 9,260명) 대비 약 39% 증가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역시 장미 개화기간(5월19일~6월8일) 동안 9만 9,613명이 방문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만1,698명(46%) 증가하는 효능감을 발휘했다.

심 민 군수는 "SNS 콘텐츠 하나가 임실관광에 대한 관심을 바꾸고, 실제 관광객을 방문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계절에 맞는 SNS 관광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발굴하고, 임실을 널리 알리는 디지털 홍보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순창군, 건강기능식품 실증 연구 본격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향후 3년간 미생물 기반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공유공장 운영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실증사업"은 다수 기업이 제조 설비와 공정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유모델을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보다 간소화된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어, 건강기능성 소재의 실용화 가능성 검증부터 기존 규제 설정, 제품까지 전

과정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다.

특히 순창군은 특구 내 지식산업화센터에 입주한 △한풍제약, △성마리오농장, △바이오타 등 3개 기업과 협력해,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의 전문 설비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및 한국소재 건강기능식품 생산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품군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구 지정은 중소 식품 벤처기업들이 높은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기능성 식품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형 임시 주거 지원

'복지안전주택' 사업 추진

남원시가 재난과 주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한 남원형 임시 주거 지원사업인 '복지안전주택' 사업 추진에 나섰다.

남원시는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후 재난 피해자나 주거 위기가구가 단기간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권역별로 확대할 방침이며, '1호 복지 안전 주택'은 시내권 빈집으로 매입을 완료하고 있고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 권역별 대상지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임시 주거시설의 공실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복지 대상자와 주거 취약계층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입소자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을 통해 호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운영 조례'를 제정해 '복지안전주택'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기센터, 쏘가리

치어 5만 마리 방류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에서는 최근 남원을 대표하는 하천인 요천에 쏘가리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치어는 남원시 관내 양식장에서 생산된 우량한 종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와 협력해 질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치어로 이루어졌으며, 전장 8cm 이상의 쏘가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쏘가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급 토종 어종으로, 수질이 우수하고 생태계가 잘 보전된 하천에서만 서식하는 지표종이다.

또한, 농어과의 육식성 민물고기지만 맛이 돼지고기처럼 좋다고 하여 수둔(水豚)이라 불리기도 하며 '맛입어'라는 별칭도 있을 만큼 식감이 좋다고 담백해 '민물의 제왕'으로 불린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업인 단체 등 10여명이 참여하여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